



# 다시 고개 든 길거리 모집·무이자 할부

## 카드사 과당 경쟁... 또 '카드대란' 오나

### 5개 전업카드사 1분기 영업비용만 2조5천억 써

### 올 3월말 9천만장 발급... 순익 급감 부실화 우려

올해 들어 신용카드사들의 영업경쟁이 격화되면서 카드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가급등과 경기하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은 소비자들의 빚 부담만 키우고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질 경우 소비자들과 카드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길거리 모집·무이자 할부 - 영업비 '평평' = 23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 등 5개 전업 카드사들이 올 1분기에 쓴 회원 모집과 유지, 마케팅 등 영업비용은 2조4천97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 증가했다. 이는 같은기간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22%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카드사들이 그만큼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다.

여신금융협회의 집계결과, 카드 모집인은 2003년 카드 부실사태 직후인 2004년에는 1만6천783명에 머물렀으나 올해 5월 말에는 2배가 넘는 3만6천765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농협 등 은행계 카드사도 모집인을 활용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전체 신용카드 발급잔수는 2007년 3월말 9천207만장에서 작년말 8천956만장으로 줄었다가 올해 3월말 9천67만장으로 다시 9천만장을 넘어섰다. 이처럼 회원 모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길거리 모집과 고가의 사은품 제공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한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의 불법회원 유치행위를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L카드사는 연회비의 10%로 제한한 경품제공 규정

에 어긋나는 고가의 가방을 신규 가입자에게 줬으며 S카드사와 L카드사는 위탁시설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했다. 일부 카드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이 결제할 때 자사 카드를 이용하면 2~3개월의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팝업창 광고를 하며 그 대가로 쇼핑물 지불대행업체에 분기마다 2억~3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예컨대 8개월 할부를 하는 고객에게 4개월 만 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마케팅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무이자할부 억제 등 감독강화 = 카드사들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1분기 전업계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은 6천

98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 순이익은 6천358억원으로 43.3% 감소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의 가시화, 마케팅 비용 증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으로 앞으로 이익 감소가 뚜렷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3월말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채권 연체율은 3.52%로 작년 말보다 0.27%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는 후행지표라는 점과 물가급등에 따른 국민 실질소득 감소, 경기 둔화세를 감안할 때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은행계 카드사들의 카드채권 연체율은 전업계 카드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작년말 1.3%에서 올해 3월말 1.4%, 5월말 1.8%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은행 전체 대출채권의 연체율 1.04%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들에 장기 무이자나 수수료 할인 등의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으며 수익성 분석에 근거해 영업을 하고 있는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코스피 장중 1700 붕괴

### 3개월만에... 글로벌 약세 여전

코스피지수가 23일 미국 증시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약 3개월 만에 장중 1,700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 뉴욕증시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2,000선이 붕괴했다는 소식에 개장 초 1,7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1,7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4월 1일 이후 처음이다. 한때 1,694.79까지 밀리기도 했던 코스피지수는 개인이 '사자'로 돌아서고 기관의 매수세가 커지면서 1,700선을 회복해 전 거래일보다 15.41포인트(0.89%) 내린 1,715.59로 마감했다. 외국인인 이날 하락세를 주도하며 4천97억원어치의 순매도를 기록, 11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이날 들어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액은 3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3천63억원, 612억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였고 프로그램 매매도 2천81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3.45포인트(0.57%) 내린 605.71을 기록하면서 600선을 지켰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전거래일보다 220.40포인트(1.83%) 떨어진 11,842.6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천차만별'

### 최저거래금액 기준 33배까지 격차

증권사들의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가 최저 거래금액 기준으로 33배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50만원 미만 최저거래액 기준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가 0.5%로 업계 최저 수수료율인 0.015%의 33배에 달했다.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하나대투증권,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은 지난 4월 이후 수수료 인하경쟁이 붙으면서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인 0.015%로 낮춘 바 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살 때 최저수수료를 적용 증권사를 통한다면 수수료 75원을 내야 하지만 비싼 증권사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려 2천500원이나 된다. 삼성증권은 50만원 미만 온라인 주식거래 최저수수료가 0.4982%, 한화증권과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은 0.498132%, CJ투자증권은 10만원 미만이 0.498%로 가장 비싼 편에 속했다. 이에 비해 신영증권은 0.1%, 미래에셋증권은 0.029%로 중저가에 속했으나 최저수수료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7배, 2배의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 하도급업체 대금 지연 등 법규 위반 9년간 3천억원

제조·건설·용역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 납품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적발된 하도급대금 규모가 최근 9년간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999년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도입한 이후 작년까지 1만1천88개의 원사업자가 15만7천420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한 각종 하도급대금의 규모가 총 2천748억원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천개의 원사업자와 9만5천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시정조치 금액은 총 3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박상용 기업협력국장장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1999년 이후 연평균 1만7천491개의 중소형 하도급업체가 구제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 조사를 도입해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현금성 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서면·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병행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999년 34.8%에서 지난해 88.5%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만기 60일이 넘는 장기어음의 결제비율은 같은 기간 60.7%에서 27%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 프랜차이즈 과장·허위정보 처벌

###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이나 가맹점 개설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맹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도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최근 3년간 가맹점의 매출액, 개설비용, 가맹점 해지율 등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가맹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 "올 경제성장률 4% 후반"

### 배국환 차관 "공기업 선진화 반드시 추진"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정부는 올해 전례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 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치고 어려운 상태이며,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년 후반이 이후가 될 것임으로 우리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4% 후반 성장 전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월

경제운용계획 발표시에는 올해 우리 경제가 6% 안팎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그는 "지난주 당정청 회동에서 4개 사항에 대해 입장정리를 분명히 했다"면서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각적으로 정기국회 이전에 방안을 마련하며 ▲혁신도시와 관련해 반드시 같이 추진하고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 등은 일기 중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당정청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올 한국 성장률 2% 최저 전망"

###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 전망치 한달만에 0.1%P 내려

정부가 7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달 만에 다시 0.1%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아시아 주요국 중 대만을 제외하고는 가장 저조한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대만에 뒤처져 성장이 가장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BNP파리바·골드만삭스·JP모건·리만브러더스·모건스탠리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

은행이 5월말 현재 보고서를 통해 밝힌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4.5%에 그쳤다. 이는 한달 전인 4월말 현재 4.6%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아시아 주요국 중 대만(4.2%)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투자은행들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2%로 가장 높게 잡았고 인도네시아(5.9%), 필리핀(5.6%), 싱가포르(5.4%), 말레이시아(5.4%), 홍콩(5.2%) 등도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컷 아웃 스타일 수영복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4층 탱커스 매장에서는 아껴나 배·허리부분을 과감히 잘라낸 '컷 아웃(cut out)' 스타일의 원피스 수영복이 선보여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한국 자동차부품 품질 우수... 값은 비싸"

### GM·포드·푸조 등 세계적 자동차사 바이어들 평가

GM·포드·푸조 등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사의 바이어들은 한국의 자동차부품 품질이 우수하지만 경쟁력인 대만·중국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코트라가 국제수송기계부품 산업전에 참가한 바이어 40여명을 대상으로 동북아 4개국의 자동차 부품 경쟁력을 설문한 결과,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일본(6.9점)에 이어 2위(6.4점)를 차지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대만과 중국에 밀렸다.

종합평가는 한국이 6.4점으로 대만(6.2점)과 중국(5.4점)을 앞질렀지만,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는 중국이 8.4점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대만이 6.9점, 한국은 6.6점으로 3위에 그쳤다. 또 한국은 의사소통 부문에서도 5.8점으로 일본(6.4점), 대만(6.3점)에 뒤졌다. 다만 품질과 납기, A/S, 독창성 부문에서는 모두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우수한 품질과 성실성으로 가격 부분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제품의 독창성 부문에서 일본(6.8점)과 비교할 때 한국은 5.8점에 불과해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첨단부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가한 바이어의 38%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로 '고품질'을 꼽고 있어 신부품 개발을 게을리할 경우 중국이나 대만으로 구매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산 부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정보 부족'을 지적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국제행사 참가를 통해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해테크	시스템 분석, 설계사 및 프로그램 개발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6/25	062-384-1200
한신포스코	일반사무직 시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27	062-234-3600
㈜승일금속	참호, 철물 조립 및 현장시공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7	062-524-1554
㈜화인코리아	생산관리/연구개발/기타 등 분야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8	061-330-4523
엘리시인	경리시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6/30	062-233-3231
㈜합	참신하고 성실한 스타일리스트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30	062-375-5998
㈜피피아이	회사 전기, 배관, 시설관리 업무 경력직	고졸/경력2년	1600~1800	06/30	062-972-0116
㈜이انس	회계, 경리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1600~1800	06/30	062-382-1132
맨테크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홍보관 관리 및 안내업무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6/30	011-292-1160
노블레스호텔	노블레스 호텔 프론트 캐셔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385-1100
㈜스케이	여성의류 쇼핑을 전문으로 하는 유행기사를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224-2282
㈜이엘앤디	기계설계/연구개발 및 총무직 시원	대졸/경력무관	2400~2600	06/30	062-946-9420
떡보의후루홈저서	직접점 운영 총괄 (점장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962-8567
한기랩	재고관리 및 상품포장 담당하실 남직원분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30	062-362-3337

(광주직접콜리 512-6210 제공)